

2025
DECEMBER

12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6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복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02 FOCUS

새롭게 출범할 보건 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03 KAMT NEWS

'Healthy 강남, 손앤손
건강걷기 축제' 참가

04 KAMT NEWS

성북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에 성금 기탁

05 INTERVIEW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검사실을 지키는 사람들

06 INSIGHT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제515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돌봄통합지원법에 '임상병리사' 명시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문검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를”을 “사업 또는 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월 7일(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돌봄통합지원법 내에 명시한 것으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법률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명확히 포함했다. 또한 영양관리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실행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임상병리사의 검사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방문검사서비스는 돌봄 대상자의 불필요한 병원 내원을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만성질환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간 검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된 환경에서 보다 일관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임상병리사가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 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 조

기 진단과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확한 검사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은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 관련 지침과 사업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문검사 항목, 품질관리 기준, 인력 배치, 수가 체계 등 후속 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와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광우 협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돌봄체계가 구축되면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더 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방문검사 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 교육체계 정비, 지역사회 기반 검사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요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보건소·요양시설·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 통합돌봄사업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5년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12월 14일 시행...합격자 발표 12월 3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2025년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이 12월 14일(일) 실시된다. 시험은 전국 지정 고사장장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 등 필수 지참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1일(수)로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응시자에 한해 SMS로 합격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험 관련 세부사항과 고사장 위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12/1/view.do?seq=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출범한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오랜 갈등을 조정하고,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해 국민건강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큰 방향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제26조의2 신설)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법안이 되었다. 현 법령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전문가 검증 구조가 부재하고 비전문가가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전문 영역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역별 전문성을 반영하는 체계적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 각 보건의료 직역의 의료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교육·면허·경력 등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전문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특정 업무를 어느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절차, 학문적 근거 검토, 법적·윤리적 영향 평가 등의 장치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영역을 단순 행정 논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결국 누구나 수행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에서 비전문가가 다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의료기술적 세부사항이나 환자 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사·치료·처치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직종인 임상병리사 등 전문직역은 소수 참여에 그칠 수 있어,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문가 수적 열세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비전문가의 의견이 우세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직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검체 채취 전처리, 검사, 감염병 진단, POCT 관리, 유전자검사 등은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이며, 부적절한 수행은 오진·진단 지연·치료 실패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 없이 비전문가가 다수가 구성되어 있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가 변경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인해 검사 정확도와 환자 안전이 직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본 가치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원 구성 시 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구조를 지양하고, 전문자격·학문적 근거·임상경험 등 객관적 기준을 갖춘 전문가가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향후 시행령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성 기반, 환자안전 중심, 대표성 보장, 투명성 강화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직역 간 조정기구의 운영 문제를 넘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업무조정위원회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견고한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첫째,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직역 간 균형 및 전문성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구조여야 하며, 각 직역의 고유업무와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필수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직역별 참여 비율, 전문가 자격 기준, 이해상충 방지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특정 직역 편향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둘째,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안전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업무조정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컨대 보건의료 분야별로 고도의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증 없는 조정은 환자안전에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업무 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 표결 결과 공개, 검증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뿐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큰 사안일수록 투명성 확보는 갈등의 최소화할 가능하게 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정 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넷째,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업무조정 결과 특정 직역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격 보완기준, 품질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직역 간 갈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협회는 이러한 가치가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참여할 것이다. 전문성 기반의 조정 체계가 확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현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개선점을 꾸준히 전달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제도는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길이 바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 모든 논의의 중심에 환자와 국민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 협회는 앞으로도 책임과 사명을 다해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Healthy 강남, 손앤손 건강걷기 축제’ 참가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인지기능검사 등 의료지원활동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15일(토) 대치근린공원에서 열린 ‘Healthy 강남, 손앤손 건강걷기 축제’에 건강검진 부스로 참가해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인지기능검사 등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기본 건강지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장 검사를 제공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부스를 찾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혈당과 혈압은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건강 지표”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과정에서 치매,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주요 건강 고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국민 건강에 필요한 각종 진단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건강관리 방향을 안내하는 데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협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건강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진단검사가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공공행사와 지역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결의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13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8일(토) 오후 1시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3명, 총원 45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514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의 건, 2025년 제187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의 건, 2027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지 답사 진행 예정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지원금 관련 보고의 건, 2025년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참석 보고의 건, 2025년 시도회, 분과학회 행정지도감사 감사자 선정 완료, 2025년도 제53회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안내의 건,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회계 프로그램 더존 아바란스 계약 보고, 협회 제휴카드 사용 기금 적립, 2025 서울시 K-어울림 건강문화 페스티벌 기부금 지급, 2025년 협회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납부,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결산 보고 ▲학술부 제2차 학술부 연수강좌 개최 보고의 건, 국제학생포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교수협의회-협회 공동회의 계획의 건, 2025년 3차 연수강좌 개최 안, 강사 기준 및 강사료 지급 기준 개정(안) 준

비 ▲교육부 전문임상병리사 시험 최종 점검 회의, 2025년도 제1차 임평원 원장단 회의 개최 ▲국제부 2025 교차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완료의 건, 제41차 AAMLS BOD(이사회) 개최 준비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10월호 발행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배포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의 건, AI상담센터 운영의 건, 전산장비 구입 보고의 건 ▲기획정책부 ‘2025 Healthy 강남’ 손앤손 건강걷기 축제 참가의 건 ▲법제부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워크숍 개최의 건 ▲정부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 보고의 건 ▲중소병의원부 발전위원회 7차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8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채혈료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의 건, 메디아미 미팅(건강보험청구심사교육) 보고의 건, 제9차 보험부 회의 개최 예정의 건을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관련 상황 방안 논의의 건, 대한조직세포검사항회 집행부 워크숍 찬조금 지급의 건,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업무협약 체결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기타토의 후 제513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성북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성금 기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25일(화)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지우현 총무이사, 조미숙 사무총장, 최현지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했고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와 종암동에 위치한 유정식당도 물품 기부에 함께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성북구가 매년 추진하는 대표적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생계비 지원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협회 및 서울시회를 비롯한 세 단체는 2020년부터 6년간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해왔다.

지우현 총무이사는 “임상병리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원이 종암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랫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품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책임 있게 전달하겠다.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품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 가구 등 관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연말연시 지원 및 긴급복지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회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나눔 활동과 지역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 동정

11월 04일 제3차 회관운영위원회 회의

11월 08일 제513차 상임이사회 및 행정지도감사 교육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회의

11월 10일~11일 외부회계감사 중간감사

11월 15일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

11월 15일~16일 16개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11월 20일 제2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기획부 회의

11월 25일 성북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행사

11월 26일 회장단 회의

11월 27일 제2차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회의

11월 29일 제9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검사실을 지키는 사람들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임상병리사 이영훈·정현지 회원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기상과 해상 상황에 따라 하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곳이다. 배편과 항공편 일정이 바뀌면 물품 수급부터 환자 이송, 수탁검사 일정까지 의료 현장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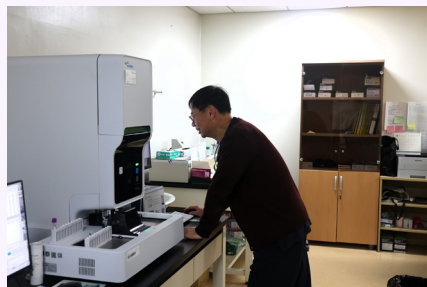


최근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이러한 도서지역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검사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을 격려하고자 백령도를 방문했다. 협회는 서북단 최전방에서 근무하며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회원들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고, 이두익 분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을 살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서지역이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검사실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온 이들의 헌신이 지역 의료의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백령병원 검사실은 응급상황과 일상 진료 모두에 차질이 없도록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의료를 지탱하고 있다. 그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유이(有二)의 임상병리사, 이영훈, 정현지 회원을 만났다.

두 회원이 백령도에 오게 된 계기는 다르다. 이영훈 회원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도서지역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말한다. 협회에서 도서지역 병원을 직접 찾아와 현장을 살피고 격려해 준 경험도 근무에 대한 보람을 더해주었다고 했다. 정현지 회원은 개인적 배경을 들려줬다. 해병대 복무 시절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서해 최북단이라는 환경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결합해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발이었지만 ‘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백령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일반 지역과 다르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백령병원에서는 검사 결과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실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영훈 회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고, 정현지 회원도 “섬에는 다른 병원이 없기 때문에 검사 하나가 의사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은 예상보다 더 많은 제약을 만들어낸다. 기상 악화로 배편이 멈추면 물품 수급이 중단된다. 최근 독감이 빠르게 번진 날, 인플루엔자 검사키트 100개가 하루 만에 소진돼 군부대 비축분을 받아 검사했던 경험은 이영훈 회원에게도 큰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비 고장도 큰 부담이다. 정현지 회원은 “장비 엔지니어가 즉시 방문하기 어려워 검사 공백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소의 유지·보수와 예비 부품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후송이 기상 악화로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진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송이 막혀 환자를 떠나지 못하게 될 때가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령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면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영훈 회원은 낚시를 취미로 즐기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시간을 이야기했고, 정현지 회원은 하늬해변에서 점박이물범을 직접 보고 뒤편으로 복한 땅이 보이는 독특한 풍경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백령도만의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도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 농번기에 도움을 드리면 감자, 쌀, 감자, 해산물 등을 챙겨주는 주민들, 병원 직원이라며 음식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식당 사장님 등 이런 일상적 교류는 두 회원이 섬 생활을 버티게 만드는 조용한 에너지로 작용한다.

도서지역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영훈 회원은 5년 전 있었던 응급 수혈 상황을 떠올렸다. 이영훈 회원은 “대량의 O형 혈액이 필요했는데, 해병대와 주민들이 연락 즉시 헌혈에 참여해 단시간에 60유닛이 확보됐습니다. 밤새 검사하고 수혈을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지 회원은 수탁검사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수탁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 검체를 검사실에서 배편으로 보내야 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검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체 안정성, 기상, 운항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도서지역 임상병리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두 회원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경험’이었다. 이영훈 회원은 검사기기 고장 시 직접 대체 부품을 만들어 해결했던 사례를 들며 도서지역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현지 회원은 “섬에서는 검사 하나가 진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회원은 후배 임상병리사들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이영훈 회원은 “전문 지식과 의료진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과 AI 관련 역량을 꾸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지 회원은 “임상병리사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키는 의료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직업적 자부심을 강조했다.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두 임상병리사의 이야기는 도서지역 의료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담아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묵묵히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한편, 협회가 백령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병원에서는 EBS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촬영팀이 이두익 분원장과 백령병원을 취재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은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될 예정으로, 도서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TV를 통해 조명될 전망이다.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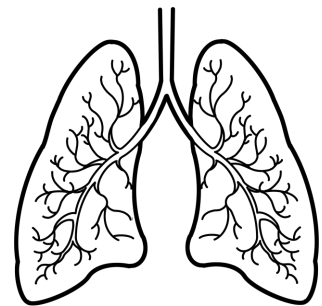
국가검진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안내 및 협조 요청사항

■ 도입목적

-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질환의 만성화 및 급성 악화 방지하기 위함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개요

정 의: 흡연 등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
유병률: 40세 이상 12.7%(남 18.6, 여 7.1), 65세 이상 25.6%(남 38.8, 여 14.9)... '19년 기준



■ 일반건강검진 內 폐기능 검사 추가('26.1.1. 시행)

- 대상 : 56, 66세 전체 국민 남·여(의료급여수급권자 등 포함)
- 검사방법: 기본폐기능검사 또는 간이호흡기능검사 ... 참고자료 1
기본폐기능검사 ... 요양급여 청구코드(F6001), '25년 기준수가비용(16,140원)
간이호흡기능검사 ... 요양급여 청구코드(F6013), '25년 기준수가비용(4,720원)

※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나-601) 참고

■ 검진기관 협조사항

- 장비등록: 검진기관에서 신규 구매 또는 보유 중인 사용가능한 장비를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폐기능 장비 등록
등록방법: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is.nhis.or.kr>) 접속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변경신고 → 검진장비 → 의과장비 보유현황 행추가
→ 폐기능검사기기(장비명칭) 선택 → 모델명, 보유수, 제조번호등입력·저장
※ 미등록(미보유)기관의 경우 현행골밀도검사와 동일하게 장비공동이용가능

○(향후일정)

(공단본부)장비등록 협조 공문 발송(10.24.~) → (검진기관)장비등록(10.27.~) 폐기능검사 관련, 교육동영상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등록 예정(11.21.~)

폐기능 검사 개요

■ 폐기능검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폐활량측정법을 통해 호흡능력을 평가

- 공기를 들이 마시고, 내쉬는 과정의 공기 부피를 측정하여 노력폐활량(FVC), 1초노력호기량(FEV1), FEV1/FVC 비율 등의 측정치를 통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진단(간이검사의 경우 FVC를 FEV6로 대체하여 평가)

폐활량측정기(Spirometry)



※ (예시) 기본 폐기능검사 장비

검사방법

- 검사 전 준비사항들을 대상자에게 확인,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함을 설명
- 검사자는 검사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시범으로 보여주며 설명
- 검사 단계별로 가능한 최대로 깊게 들이마시도록 격려하고, 마우스피스에 공기를 쏘아 붓도록 큰소리로 유도
- 6초 이상 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3회 측정 결과 중에 제일 좋은 결과를 선택

■ 검사 금기사항 (2016년 폐활량검사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최근 3달 이내에 안과 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망막박리, 대동맥류가 있었던 경우
- 과호흡 혹은 최대 노력호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모야모야병, 반복 자발기흉)
- 현재 결핵 등 호흡기감염을 갖고 있거나 이에 노출된 가족
- 지난 한달 내 대량 객혈이 있었던 경우
- 수축기 혈압 200 mmHg 초과 혹은 이완기 혈압 140 mmHg 초과

■ 검사 전 유의사항

-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
- 검진 전 심한운동, 흡연 여부 확인 : 운동 및 흡연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시간 경과 후 검사 필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seegenemedical.com/>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
 Grand Ope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씨젠메디칼타워

“창립 35주년, 「씨젠메디칼타워」에서 새로운 미래를 엿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지하 6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연면적 약 17,000평 규모의 「씨젠메디칼타워」를 준공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검사 품질의 완벽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요 특징점

01
최첨단
스마트 빌딩 관리
체계(IBS)

02
국내 최대 수준
검사실 자동화
(TLA)

03
분자진단
PCR 검사 전과정
자동화 플랫폼

04
융합형 첨단 연구
환경(분자진단 · 면역
· 질량분석 · AI)

05
해외 진출
의료 네트워크 확대
(오픈헬스케어주)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서울 다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서 건강검진 부스 운영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는 11월 29일(토) 서울여성가족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 다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서울시 거주 내·외국인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부스를 운영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회는 이번 행사에서 혈압, 간지혈당, 당화혈색소(HbA1c), 안저촬영 등 현장검사(POCT) 기반의 기초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문선 회장, 신상현 행정부회장, 문병현 재무이사 등이 검사 인력으로 참여해 현장 운영을 지원했다.

황문선 회장은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 후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외국인 주민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돌봄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까지 찾아가 역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의료 접근성이 필요한 곳에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내·외국인 주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신경전도검사(NCS) 실무 교육 성료

“실무 역량 강화로 취업 문 넓혀”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급변하는 의료 취업 시장에 맞춰 회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 성공까지 이끄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산시회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미취업자 및 현직 임상병리사 20명을 대상으로 ‘신경전도검사(NCS)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현정·구정민 강사가 참여해 ▲운동신경 ▲감각신경 ▲안면신경 등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사 기법을 다뤘다. 특히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4시간 중 3시간을 실습에 배정, 이론과 실무 비율을 1:3으로 구성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전문의 초청 특강을 커리큘럼에 포함해 의학적 전문성을 더하고 교육의 신뢰도를 높인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다. 협회는 수료증에 단순히 교육 이수 사실만 기재하는 관행을 깨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안면신경 이론 및 실습 이수’ 등 세부 교육 내용을 명시하여 구직 시 직무역량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이번 교육에 참여한 미취업 수료자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결실을 맺으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

황원주 회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11월 1일(토)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2025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등록 기간 중 장소 변경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251명의 회원이 참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교육은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파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의 회원이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도움이 됐다”, “강사들의 열정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을 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보수교육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10월 25일(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홀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검사실 내 비교평가 방법과 결과 해석(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지윤) ▲채혈부터 결과까지(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희준) ▲진단검사 혁신을 위한 ChatGPT 활용 교육(바른 인천 응급처치 교육센터) ▲임상병리사의 이슈와 대응, 미래의 길을 묻다(서울대학교병원 박희열)를 주제로 진행됐다.

서정훈 회장은 “회원들의 이목을 끌고 유익한 내용의 보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들으신 회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 보수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지난 10월 25일(토) 오후 1시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개회식에서 채희영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인천시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중앙회 김한규 기획부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학제 일원화, 돌봄통합지원법 등 협회의 핵심 정책과 추진 현황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분자진단검사(길병원 최숙향) ▲면역학의 기초와 IFA/ELISA 검사법의 원리(이원의료재단 황영신) ▲시력 너머의 세상, 임상병리사가 밝힌다(인하대병원 박준범) ▲현장검사의 이해와 우리의 역할(나은병원 강선희) ▲Werfen's specialized diagnostic portfolio(웨펜 학술부 이상엽·강경애) ▲임상화학 분야 정도관리의 이해와 실제(울쏘 학술부 이성빈)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2부 순서에서는 이원의료재단 황영신 회원과 인하대병원 박준범 회원이 학술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중소병의원부에서는 회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와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회원 181명이 참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더 다양한 교육 주제와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제2차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10월 21일(화) 오후 6시 송도 오이삼계탕에서 자문위원 및 제19대 집행부 회장단과 함께 제2차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해순 자문위원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채희영 회장이 인천시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협회 정책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전달하며 집행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회는 매년 두 차례 자문위원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일(화) 제1차 간담회를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를 마련했다. 자문위원들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인천시회는 앞으로도 자문위원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역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11월 15일(토)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서의 친절 Skill Up 교육(분당제생병원 박성필) ▲보건의료 통계: 빅데이터의 분석(경북대학교 김정현) ▲AI와 의료기기(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이현아) ▲검사실 안전, 규정을 넘어 문화가 되다(세종충남대병원 한승희)의 교육이 진행됐다.

충북도회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회 돌봄의료 봉사단,
결혼이민자 및 가족,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지원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돌봄의료 봉사단은 11월 22일(토)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및 가족,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행사에 참여해 현장검사(POCT)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충북도회 돌봄봉사단은 혈당과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HDL·LDL 등 지질 검사, AI 기반 안저 촬영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예후 확인과 건강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의료봉사 지원 행사는 보은군과 외교부 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된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마련된 공공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보은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대표적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은 언어·경제적 제약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도회 김창수 회장, 조인환 총무이사 외 3명 ▲중앙회 지우현 총무이사, 이정수 대외협력이사, 이경배 총무부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여해 현장을 운영했다.

김창수 회장은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이 기본적인 검사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과 직능단체가 함께 건강관리의 첫 관문을 열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은군 사례처럼 지역 간 협력 기반이 확장되어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임상병리사도 현장검사와 건강모니터링을 제공해 지역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하이브리드(온라인병행)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현준)가 10월 25일(토) 전북대학교 모악홀에서 2025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김현준 회장의 인사말과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제63

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구연발표(전북대학교 병원 문지영)와 우수포스터상(전북대학교병원 서대의)을 수상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이번 보수교육은 전국 최초로 도회 오프라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하이브리드 보수교육’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많은 회원뿐 아니라 타 지회 및 분과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강의는 보건복지부 필수교육을 포함해 ▲심전도 알아가기(남원의료원 순환기내과 최서원 전문의) ▲국가검진 다빈도 감점사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검진기관 평가(대구보훈병원 이재숙 팀장) ▲분자진단의 다음 한 걸음(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권기상 교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관리(삼성서울병원 홍성철 안전관리자)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병행 교육은 현장의 강의자료와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소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온라인 참여 회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김현준 회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이브리드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외지역 종사자들에게 회원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며 “이는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도회는 소외지역 회원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북도회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의료봉사로 도민과 건강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는 11월 23일(일) 남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회 회원과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와 학생 등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료봉사 및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하며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전국 5,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회는 의료부스에서 현장검사(POCT) 기기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심전도 및 혈압 검사 ▲혈관건강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전도 이상 및 폐쇄성 환기장애 의심 지표가 확인된 일부 참가자에게는 의료기관 추가 진료를 권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국마라톤협회의 한 임원은 “임상병리사협회의 의료봉사 검사 활동을 통한 참가자들의 건강 모니터링이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회 운영에 대한 주최 측의 심리적 안정에 큰 공헌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료봉사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회장은 “협회의 핵심사업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에서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 의료봉사 시에도 현장에서 가능한 검사 항목의 확대도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내 체육행사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 지역 보건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도회는 이를 통해 향후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10월 25일(토) 오후 3시, 포항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25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총 4개의 강의와 면허신고 필수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임상병리사의 길, 행정의 길과 만나다(김영길) ▲ChatGPT를 활용한 업무 역량 강화(남호정) ▲사구체성 혈뇨 진단을 위한 요적혈구 분포(URD)와 변형적혈구(dRBC) 비교: 다기관 연구(전창호) ▲어지럼증에서의 신경생리학적 검사(김종필)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실무 강의들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필수교육도 함께 진행돼 임상병리사의 직무 윤리의식과 면허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조대현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도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보수교육과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 중심의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11월 8일(토) 오후 3시, 구미시금오테니스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제28대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2026년 중앙회 대의원총회 경북도회 선출직 대의원 선정(안) ▲국제학회 지원 확대(안) ▲규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향후 도회의 운영 방향과 회원 중심의 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조대현 회장은 “임원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가 도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며,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도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제3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마산대학교 창의관에서 2025년도 제3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사전 등록한 회원들의 전자출결 및 학생들의 포럼 발표로 시작했다. 마산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열정적인 발표 끝에 김해대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CBC 이상결과 보고관리(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해린) ▲AI시대, 병리검사실의 변화와 대응(마산대학교 김진목) ▲국가 검진 진단 검사 분야의 이해(천주성삼병원 이현주) ▲분변이식(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최민규) 등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제4차 정기이사회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가 11월 15일(토) 오후 3시, 제4차 정기이사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선정에 대한 포상위원회 회의 보고 ▲부서별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어 기타토의에서는 ▲긴급 이사회 안건 보고 ▲지역 행사 관련 홍보부스 안건 ▲전문임상병리사 취득 지원건 ▲보수교육 횟수 안건 ▲실무교육 안건으로 폐기능검사 실무교육의 향후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경남도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는 지난 11월 8일(토)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추계 학술대회 및 대학 임상병리학과 학생포럼을 개최했다.

이현아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의 급속한 발전을 현장의 변화로 연결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Open AI의 ChatGPT, Google의 Gemini 등 새로운 기술은 자동보고 비율의 향상, 업무 표준화의 가속 등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우리 곁으로 빠르게 가져올 것이고 우리 임상병리사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각자의 기관에서 이론 성과를 학술대회에서 나누어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특강 시간에는 ▲말초혈액도말을 통한 혈구 형태 검사(중앙대학교병원 김홍경 교수) ▲응고 기전 및 응고 검사의 임상적 해석(서울아산병원 추대현 교수) ▲BORA(Beginning of Right Analysis), 안전한 채혈(BD Korea 오수경) 관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구연발표 시간에는 ▲CBC 검사 시 한랭항체에 의한 간섭현상(국립중앙의료원 김나래), CBC parameter(상계백병원 박상미)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학술대회 전 진행된 학생포럼에서는 총 4개 대학 교수 4명 및 학생 19명이 초록발표 및 구연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수상도 진행됐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는 11월 1일(토),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326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수혈의학검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김은영 학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임상수혈검사 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가톨릭의대 제갈동욱 교수의 특강 ‘CAR-T 세포와 치료’를 시작으로 ▲2024-25 대한적십자 혈액사업 현황(인천적십자 혈액원 김명언) ▲다발성 골수증 환자의 Daratumumab 투여와 수혈 전 검사상의 고려 사항(세브란스병원 소유진) ▲PEG를 이용한 자가항체 흡착 방법(삼성서울병원 이진영) ▲Single Tube and Two Results — Sampling depth-related ABO discrepancy after MTP with Group O RBC(서울아산병원 김은기, Bio-Rad 장형순) ▲냉동 혈소판제 제조 경험(아주대학교병원 조현수) 등 총 5편의 구연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유화종 회원과 한마음혈액원 최성준 회원이 학술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는 2026년 10월 31일(토)에도 같은 장소인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학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및 신속진단검사 심포지엄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11월 11일(토) 중앙대학교 경주 송봉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 및 신속 진단검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200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 최신 진단 기법, 임상 미생물검사의 기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Disease X’ 대비 전략과 같은 거시적 관점의 강의와 더불어, Gram Stain 및 검체 배양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세션들로 구성됐다.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학생포럼에서는 총 11개 대학교에서 137명의 학생과 11명의 지도교수가 참가해 열띤 발표 경쟁을 펼쳤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11개 팀은 7분간의 구연 발표를 통해 기량을 겨루었으며, 현장 평가를 통해 동남보건대학교 팀이 대상, 그 외 10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이번 심포지엄과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임상미생물 분야의 신속 진단 기술과 최신 연구 성과 공유,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지식 확산,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유연 학회장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술대회와 학생 포럼에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협회가 학술적 깊이와 미래의 비전을 모두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건동)는 11월 8일(토), 2025년도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유전검사 기술의 흐름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며, 임상유전검사 분야의 학술 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유전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미숙) 주관으로 유전전문임상병리사 인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신규 인증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전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GCK Genetic Variants as Triggers and Higher BMI as Accelerators in the Progression from Dysglycemia to Diabetes(호서대학교 강민지 학생) ▲Methodology for the Detection of Mycoplasma in Indoor Environments(신한대학교 문란주 학생) ▲AI 기반 STR 데이터 자동 분석 시스템 개발 및 법유전학적 활용 가능성 평가(경북대학교 김나희 학생) ▲노화와 백발화에서 모근 세포 내 mtDNA의 양적 변화(울지대학교 김형진 학생) ▲ddPCR을 활용한 cfDNA 액체생검 조직검사 대체 가능성(가톨릭관동대학교 박정아 학생) 등이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인재 발굴과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본격적인 학술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Interpretation of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PGT) Results and Genetic Counseling(세브란스병원 박유진 교수) ▲착상전 배아 유전자 검사 PGT-A(SCL 안정육) ▲비침습산전유전자검사(NIPT)의 원리와 검사실 적용(GC지놈 문예술 연구원) 등 주제가 발표되며 생식유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서 ▲Introduction to Genome-Related Research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Year(호서대학교 진현석 교수) ▲Hallmarks of Cancer & Signaling Pathways in Cancer Therapy(서울아산병원 임정식 교수) ▲혈액암 환자의 MRD monitoring: IG/TCR gene rearrangement [NGS](서울성모병원 권순미)를 주제로 유전체 연구와 암 진단 분야의 임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학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평의원회의가 열려 2025년도 지출결의서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으며,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됐다.

이건동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는 임상유전검사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회원 간 학술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를 소개합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는 2024년 9월 창간되어 연 2회 발행됩니다.

학회 소식지에는 교육 일정, 정책 안내, 회원 인터뷰 외에도 병리 진단 트렌드, 검사실 운영 노하우, 연구 동향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HEPa 3호 바로가기

Vol.03 | 2025.09

HEPa
H&E stain and Pap stain

KOHC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Histology & Cytology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2025.09 | Vol. **03**

HEPa : H&E stain and Pap stain의 뜻을 담았습니다

2025 춘계학술대회, 'Urinary Tract Symposium' 성황리에 마무리

학술대회는 4개의 강연,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현안보고, 학생 우수작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강연은 실제 임상 사례 중심의 발표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진단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2025년 추계학술대회, '자궁 및 난소 병리 심포지엄' 개최 확정

강사 • 지호룡 선생(서울아산병원) ▶ 육안병리 • 윤정희 선생(국립암센터) ▶ 분자병리 • 신준영 교수(국립암센터) ▶ 현미경진단(2시간)
일시 2025.10.18.(토) **장소** 서울아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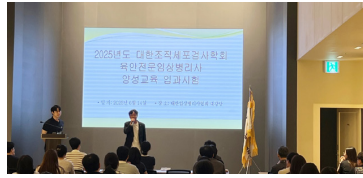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15

하화정 자문위원, IAC '올해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수상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12

전국 관심 집중, 양성교육 선발시험 역대 최대 인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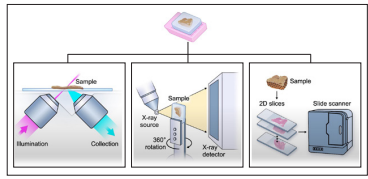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10

보수교육, 서울아산병원에서 성료...전문성 강화의 장 마련



최신 트렌드 병리검사 06

3D Pathology, 진단과 연구를 위한 병리학의 새로운 지평



해외 취업 08

벤치에서 감독까지, 글로벌 임상병리사 로드맵



병리와 안전관리 18

창의와 소통으로 빛은 공간, 안전과 효율의 일상 제공



발행일 : 2025년 9월 | 발행인 : 소선거 | 발행처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메일 : heyheyhey78@naver.com

편집위원 : 김연희 김종석 김철 심미나 안중범 이권우 이신일 이종근 송현범 주준하 지호룡 최병일 | 디자인 : 이날앤 | 인쇄 : 예림피앤피 02.2274.2588

[02811] 서울시 성북구 중암로41 대한임상병리시험회관 4층 FAX.031.961.7939 www.kshc.or.kr

대학원에 ‘임상검사과학’전공 신설 ...석박사 학위 체계 본격화

진단검사학·디지털 의학·보건의료정책 등 보건의료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연구·정책·디지털 기술까지 이해하는 융합 인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에서는 교육·연구·정책 기반을 폭넓게 구축하며 미래형 임상병리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위원으로서, 임상검사과학을 전공의 주요 특징을 병리협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서울권 유일의 임상병리사 석·박사 과정... 수도권 의료·연구 인프라와 연계된 교육 기반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은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임상병리사 석·박사 학위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임상검사, 분자진단, 감염관리, 임상병리정책, 디지털 헬스, AI 기반 진단 기술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과대학·의료원과 연계된 연구 인프라를 통해 학문적·임상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공은 이미 전국 대학·병원·연구기관에 다수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임상병리 분야의 학술·정책·산업 전반을 이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실무·연구·정책을 잇는 교육 체계...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목표

임상검사과학전공의 교육 체계는 김성욱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임상검사·분자진단·세포유전학·병리학 등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의료가, 바이오헬스 산업 분석, 보건의료정책, 지역사회 돌봄 등 확장된 분야의 교육을 더해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원 내 연구팀 간 활발한 협력, 풍부한 연구 기회,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전공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정책·산업 현장에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책 연구 성과: 한국 POCT(현장검사) 제도화 논의 선도

임상검사과학전공 ×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공동 연구
최근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POCT 제도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현장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연구에서는 ▲POCT 법적 정의 명확화 ▲중앙 관리기구 설립 ▲국가 QA/QC 기준 마련 ▲사용자 자격 기준 정립 ▲보험 수가 논의 ▲EMR·공공보건망 연계 ▲전문인력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임상검사과학전공과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이 함께 축적해 온 정책 연구 역량의 결함이자, 초고령사회 보건안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학술·정책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 축

1)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 보건의료정책 논의의 플랫폼
2021년 출범한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은 교수·교우·학생·자문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 공동체입니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인력 구조, 디지털 헬스케어, 지역사회 돌봄 등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여해 의료 공공성·POCT 제도화·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 현장과 교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분자진단연구회 – R&D 기반 실험·발표 중심의 연구 조직
2011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분자진단연구회는 분자생물학·유전학·면역학 등 분자진단 전 분야를 다루는 실무형 연구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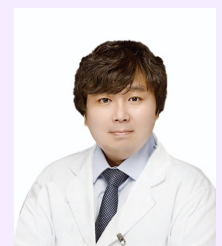
학부생부터 대학원생·연구자까지 참여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실험 역량·발표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R&D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 연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기반으로 박상용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윤이나 교수(경동대학교), 허지혜 교수(동강대학교), 최정수 교수(경남정보대학교), 김대진 교수(경북대학교), 최병걸 교수(호남대학교) 등 다수의 교우가 교수·정책·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 앞으로의 방향

고려대학교는 2025 QS 세계대학순위 67위에 오르며 연구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상검사과학전공은 교육, 연구, 정책, 디지털 의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임상병리사 대학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직역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의료환경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임상검사과학전공의 교육·연구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우 정책개발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 교수(연구)

고려대 임상검사과학전공 교우회장

前 국회의장실 보건정책비서관

씨젠의료재단, 고객감동경영대상 10년 연속 수상 영예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 이하 씨젠의료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 참가해 전문서비스(질병검사전문) 부문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최신 검사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검사 품질을 고도화하고 전국 4대 광역시에 본원급 검사센터를 운영하며 고품질 진단검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더불어 씨젠의료재단은 검체 안정성을 확보하며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창립 35주년을 맞아 10월 동대문구 ‘씨젠메디칼타워’ 본원으로 이전한 가운데 자동화 검사시스템, AI 기반 솔루션을 갖춘 미래형 의료시설로 도약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씨젠메디칼타워는 연면적 1만7,000평, 지하 6층·지상 19층, 높이 약 100m 규모의 초대형 의료·연구 복합 시설로 (주)씨젠의 독보적인 기술에 의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분자진단 PCR 검사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CURECA), AI 기반 연구 환경,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 ‘SeeLIS(씨엘아이에스)’, AI 기반 조직병리 진단 품질관리 시스템 ‘SeeDP’,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씨젠의료재단은 선진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 9~10월 해외 의료사업을 위해 독립법인 오픈헬스케어(주) 미국 LA·카자흐스탄 알마티·베트남 하노이 검사센터를 오픈했다.

또한 씨젠의료재단은 매년 50회 이상의 국내외 의료봉사를 시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는 포항 지역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 영덕 산불피해 주민 위한 의료봉사, 고려인광주진료소와 함께하는 지역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사회적 귀감이 됐다.

천종기 이사장은 “이번 신사옥 이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검사 역량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글로벌 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상병리사이자 래퍼 MC Guy 손명진 회원, 다섯 번째 싱글 ‘매운남자’ 발표

58번째 지역아동센터 봉사 이어간 따뜻한 선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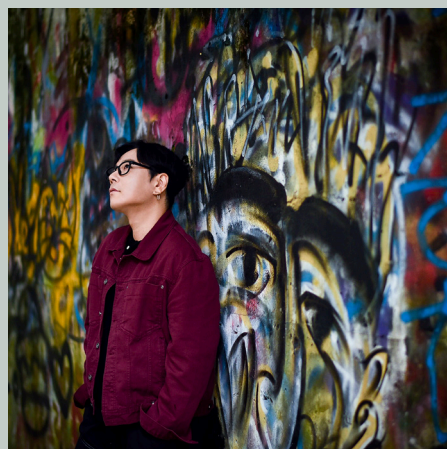
인천성모병원 병리팀에서 근무하는 19년 차 임상병리사이자 ‘아이 둘 래퍼’로 활동 중인 MC Guy가 다섯 번째 싱글 ‘매운남자’를 발표했다. 이번 신곡은 누구나 삶에서 맛닥뜨리는 ‘매운맛’의 순간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됐다.

손명진 회원은 “어릴 적 겪었던 여러 어려움, 실습생들이 들려줬던 고민, 병마와 싸우는 환자와 가족들이 버텨 왔던 시간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마주하는 매운맛까지 모두를 응원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명진 회원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꾸준한 선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58번째 장난감 행복나눔 봉사를 진행했으며, 9년째 해당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131회 헌혈을 실천하는 등 생명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한 구성원이자, 음악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실천하는 MC Guy의 꾸준한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매운남자’ 뮤직비디오 바로가기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12월 19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배송 주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 원 동 정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이용호 회원

2025년 11월 1일

춘해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발령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11월 언론보도

PRESS



2025.11.11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공공의료 발전’ 손잡다

헬스경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공공의료 발전·국민건강 증진 위해 ‘맞손’

2025.11.12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복지부공무원노조와 공공의료 발전 위한 MOU 체결

후생신보

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과 업무협약

2025.11.15

헬스경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문턱 없는 진료소에서 ‘건강신호등’ 점검하세요”

2025.11.21

헬스경향

[병원의 숨은 직업군 이모저모] 검사·진단의 핵심 ‘임상병리사’

2025.11.24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외국인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후생신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충청북도회 돌봄의료 봉사단 결혼이민자 및 가족·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지원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충청북도회, 의료봉사서 POCT 시행

2025.11.25

헬스경향

“정확한 검사, 지역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남원 춘향 마라톤대회’ 의료봉사

2025.11.26

헬스경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2025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와 건강 동행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서 의료봉사

후생신보

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지역보건·국민건강 증진 최선

2025.11.29

헬스경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현장검사로 누구에게나 건강관리 기회를”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부산시회

울산시회

광주시회

경기도회

인천시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 해주세요!

강원도회

전북도회

경북도회

충남도회

경남도회

서울시회

강원도회

대구시회

충북도회

광주시회

경남도회

경기도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친구추가 해주세요!